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에 대하여*

-자료 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박 선 이**

1. 들어가며
2. 『儷林』 소재 인물 및 작품 개관
3. 『儷林』의 자료적 가치 및 그 의의
4. 나가며

〈한국어초록〉

본 논문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과문선집인 『儷林』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儷林』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儷林』은 주로 숙종~정조 대까지 활동했던 90명의 작가들이 실제 시험에 제출했던 답안지와 습작한 科儷 709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당대 응시자들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참고하여 학습한 典範이 되는 작품들을 분류하여 정리한 選集으로, 당대의 科文의 典範이 되었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儷林』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그 의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儷林』은 관찬 수험서가 아닌 온전히 응시자들의 수요에 의해 편찬된 수험서로, 당대 응시자들이 습작하였던 科儷 작품 가운데에서도 科儷 분야에서 뛰어난 실

* 이 글은 2020년 7월 3일(금)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 우리어문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에 대하여」라는 같은 제목으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한문학 전공)

력을 보였던 작가들과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다. 숙종 대부터 국왕의 변려문에 대한 애호와 함께 科表의 출제 빈도와 비중이 높아지면서 응시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과문선집들이 편찬되었다. 『儷林』에는 여타의 과문선집에 비해 90명이나 되는 많은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작품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科儷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투어들은 생략하였지만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필사되어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典範과 善本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다음으로 『儷林』은 조선 후기 科文에 특장을 지니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작가군을 수록하고 있다. 17세기 후기에는 科文에서 특장을 보였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고 필사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儷林』은 이와 같은 과문 학습의 과정과 정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科文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科文에서 손꼽혔던 대표적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李日躋(1683~1757), 柳東賓(1720~미상), 朴道翔(1728~미상), 權綱(1708~미상)을 꼽을 수 있다. 이들처럼 科文에서의 대표적 작가들의 경우에는 생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으며 문집도 남아있지 않아 실제 그들의 작품과 특징적 면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과문선집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그들의 실제 작품과 수준을 살펴볼 수 있기에 과문선집 연구에서 『儷林』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는 적지 않다고 하겠다.

주제어: 『儷林』, 科文選集, 科儷, 科文, 과거 수험서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과문선집인 『儷林』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儷林』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그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17세기 후반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다양한 주제와 편집 체제를 갖춘 여러 종류의 과문선집이 등장하였다. 한편 민간에 유출된 시권들이 流轉되면서 실제로 시험에서 받았던 성적과는 별개로 사람들에게 명편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생겨나고 科文으로 인정받는 작가들이 나왔다. 작가의 명성과 평판에 근거하여 해당 작가가 실제 시험에서 작성하거나 제출한 試卷뿐 아니라 그가 習作하거나 私作한 작품들도 과문선집에 수록되기도 하였다.¹⁾ 『儷林』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편찬된 과문선집 중 하나로, 숙종~정조 대까지 활동한 작가들이 실제 시험에서 제출한 답안지와 시험 준비 과정에서 출제 문제를 기반으로 擬作한 수많은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儷林』에 수록된 科文은 과거 시험의 문체로 분류하자면 科儷에 해당한다. 科儷은 상응하는 두 행의 글자 수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사륙변려문에서 기원하였는데,²⁾ 주로 表의 형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이외 箋·詔·制의 형식으로도 출제되었다. 과거 시험의 문체 중 여타 문체보다 엄정한 형식을 요하는 科表는 응시자의 문장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인식되었고, 史書와 經典을 바탕으로 한 출제방식은 응시자의 학습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기에 科策과 더불어 중요시한 문체였다.³⁾

지금까지 '科儷'의 범주에 속하는 科表와 관련해서는 주로 科表의 체제와 형식을 고찰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개략적인 특징이 밝혀졌으며,⁴⁾ 試卷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져 科表의 程式과 科表 작성의 구체적인 실상을 엿볼 수 있었다.⁵⁾ 그러나 실제 科文과 직접적으로

1)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7-38쪽.

2) 본고에서 지칭하는 '科儷'은 사륙변려문처럼 對偶의 기법을 활용하여 완성한 科文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表·箋과 같은 종류의 문체가 여기에 속한다. 필자가 본고에서 주로 논의 대상으로 삼은 表와 箋은 모두 '科儷'의 기법에 의해 창작된 문체이므로, 큰 범주에서 '科儷'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191-201쪽 발췌요약.

4) 李秉嫻, 「科文의 形式考(II)-表·策을 중심으로」, 『釜山漢文學』第2輯, 부산한문학회, 1986; 이상욱, 앞의 글, 2015; 정경주,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大東漢文學』 39, 대동한문학회, 2013.

관련된 기초자료들, 즉 국가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간행된 각종 과문선집과 응시자들의 실제 답안지 및 출제 문제를 기반으로 擬作한 작품들은 여전히 일부 자료만 접근이 이루어져 현황 목록 정도만 제시된 정도에 그쳤을 뿐, 진전된 연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텍스트에는 문학사에서 높은 문학적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진 정통 한문학 작가들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지만, 科文분야에서 특별히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와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가들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들의 작품 역시 『儷林』이라는 과문선집을 통해서만 그 실체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대 과거 시험 응시자들 사이에서 典範이 되고 널리 읽혀졌던 작품이 수록된 각종 과문선집과 당대 科文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과거 문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 출발점이 되는 텍스트가 바로 『儷林』과 같은 자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儷林』에 수록된 작가들 가운데 科文으로 당대 높은 평가를 받았던 科文 작가들의 실체를 밝히고 당대에 科文으로 인정받고 널리 알려졌던 그들의 작품을 살펴볼 것이며, 과거수험서로 『儷林』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儷林』 소재 인물 및 작품 개관

『儷林』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후반까지 활동했던 90명의 인물들이 실제 시험에 제출했던 답안지와 그들이 僞作하거나 私作한 科儷 709편을

5) 김동석, 「朝鮮時代 試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모아서 인물별로 분류하고 편집한 과문선집이다. 4책(元·亨·利·貞)의 필사본으로, 현재 미국 하버드대 옌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에는 筆寫記와 序·跋文이 남아있지 않아 책이 필사된 정확한 시기와 필사자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 하지만 수록된 인물들의 생몰연대 및 小科 혹은 大科에 급제한 시기로 미루어 볼 때, 1800년경 중후반에 활동했던 필사자가 주로 숙종~정조 때까지 명성이 있었던 科文작가들의 科儂를 엮어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각 책의 卷頭에는 책에 수록된 작가의 성명과 자, 그리고 작품 수 및 작품 제목의 목록을 2단에 걸쳐 기록하였다. 다섯 번째 면부터 한 면당 한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가장 우측 행에 작품의 제목을 大字로 표기하고, 제목 아래에는 해당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성명과 자를 小字로 기재하였다. 해당 작가의 작품이 2편 이상 수록된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수록된 작품에만 작가의 성명과 자를 기록하고 나머지 작품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림 1. 『儂林』책1(元) 표지⁶⁾



그림 2. 『儂林』책1(元) 수록 작품 및 작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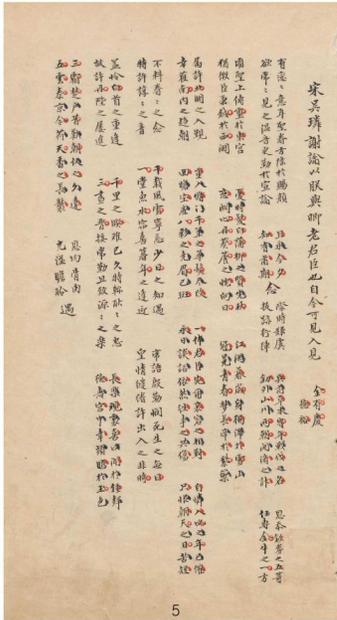


그림 3. 『儷林』책1(元) 수록 金有慶 작품

본문은 科儷의 형식, 즉 상응하는 두 행의 구조가 확연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2구씩 묶어서 기재하였다. 그런데 흔히 科表에서 보이는 상투어들은 일부 생략된 형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목에 ‘(擬)~表’ 또는 ‘(擬)~箋’ 등의 표기를 하지 않아 해당 작품이 表·箋·制 가운데 어떤 문체에 속하는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儷林』뿐만 아니라 인물별로 분류하여 편집한 여타 과문선집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형식이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당시 응시자들이 科儷를 학습할 때에는 ‘科儷’의 범주에 속하는 表·箋·制의 문

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 체제에 맞게 학습하지 않고, 전적으로 對偶의 표현 기법을 익히고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응시자들의 科文 학습에 있어 주안점이 되었던 부분은 試題에서 출제되는 문체의 체제라기 보다는 각 문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對偶를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구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한편 각각의 작품에는 편찬자나 소장자가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批點이 있다. 한 聯 전체에 걸쳐 비점을 표시한 연들이 있는데, 각 행의 홀수 번째 글자에는 붉은색 비점을 표시하고 짝수 번째 글자

6) 『儷林』의 원문이미지는 하버드대 도서관 소장본 온라인 목록인 HOLLIS(<http://hollis.harvard.edu>) 참조.

에는 푸른색 비점을 표시하였다. 이는 서로 짝이 되는 두 행이 완전히 對를 이룬 字字對의 형식미를 이룬 구절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두 행에 속하는 글자 가운데 ‘丙’·‘外’, ‘北’·‘南’과 같이 名詞對를 이루는 부분에도 붉은 색 비점을 표시하여 상응하는 두 어휘가 문법적으로 일치하여 대우가 잘 되었음을 표기하였다. 먼저 『儷林』에 수록된 인물들을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儷林』 소재 인물 및 작품 현황

	권수	수록 인물	수록 작품 수
1	책1(元)	金有慶(1669~1748)	6
2	"	趙泰-(1665~1707)	1
3	"	趙泰德(1675~1728)	2
4	"	尹憲柱(1661~1729)	1
5	"	李遂大(1675~1709)	2
6	"	洪萬迪(1660~미상)	3
7	"	林象德(1683~1719)	10
8	"	金啓煥(1669~미상)	2
9	"	趙尙慶(1676~미상)	5
10	"	睦天任(1673~1730)	5
11	"	睦天運(1711~미상)	1
12	"	沈尙鼎(1680~1721)	2
13	"	宋成明(1674~미상)	5
14	"	宋眞明(1688~1738)	2
15	"	趙景命(1674~1726)	2
16	"	趙文命(1680~1732)	7
17	"	趙顯命(1690~1752)	1
18	"	李巨源(1685~1755)	7
19	"	李眞望(1672~1737)	2
20	"	李德壽(1673~1744)	1
21	"	尹聖時(1672~1730)	3

22	"	柳 逸(1728~미상)	2
23	"	吳尙濂(1680~1707)	1
24	"	金聖甲(1696~미상)	1
25	"	尹 淳(1680~1741)	3
26	"	吳命新(1713~미상)	7
27	"	尹光天(1685~미상)	1
28	"	沈 堧(1714~미상)	1
29	"	趙文彬(1711~미상)	2
30	"	趙觀彬(1691~1757)	2
31	"	成德章(1717~미상)	2
32	"	沈尙吉(1678~1722)	1
33	"	吳光運(1689~1745)	3
34	"	林光弼(1682~1743)	1
35	"	李箕彥(1697~1743)	2
36	"	李度遠(1684~1742)	2
37	"	李壽沆(1685~미상)	3
38	"	李喆輔(1691~1775)	10
39	"	朴奎文(1723~미상)	14
40	"	金尙星(1703~1755)	4
41	"	鄭亨復(1686~1769)	1
42	"	柳 儼(1692~1752)	1
43	"	趙鎮世(1689~미상)	3
44	"	趙榮國(1698~1760)	2
45	"	李 著(1689~1737)	1
46	"	吳遂采(1692~1759)	2
47	"	李匡贊(1738~미상)	1
48	"	尹鳳朝(1680~1761)	2
49	"	姜 栢(1690~1777)	1
50	"	崔致誠(생몰년 미상)	2
51	"	洪景輔(1692~1745)	1
52	"	李光運(생몰년 미상)	5
53	"	李元煥(1730~미상)	1
54	책2(亨)	李日躋(1683~1757)	28

55	"	李匡德(1690~1748)	16
56	"	尹志泰(1700~미상)	63
57	"	權 綱(1708~미상)	31
58	"	林錫憲(1698~미상)	10
59	"	金宗岱(1733~미상)	1
60	"	李成中(1706~1760)	5
61	"	俞彥國(1735~미상)	1
62	"	李燮元(1736~미상)	1
63	"	李匡誼(1740~미상)	1
64	"	李 堉(1740~미상)	2
65	"	李廷詰(1695~미상)	1
66	"	李基德(1701~미상)	2
67	"	朴大厚(1728~미상)	1
68	"	李陽復(1635~미상)	1
69	"	李思觀(1705~1776)	5
70	"	南稔階(1736~미상)	3
71	"	申思憲(1735~미상)	1
72	"	尹光國(1756~미상)	1
73	"	洪 昇(1654~미상)	1
74	"	申史權(1753~미상)	1
75	"	李福源(1719~1792)	11
76	책3(利)	柳東賓(1720~미상)	148
77	"	沈翔雲(1732~1776)	5
78	"	南最明(생몰년 미상)	1
79	"	洪良浩(1742~1802)	10
80	"	尹 諡(생몰년 미상)	7
81	"	南胄寬(생몰년 미상)	1
82	책4(貞)	朴道翔(1728~미상)	172
83	"	許 藿(1773~미상)	6
84	"	沈 鐘(1754~미상)	5
85	"	洪鳳漢(1713~1778)	3
86	"	李鳳元(생몰년 미상)	2
87	"	尹冕東(1728~미상)	3

88	"	李得華(1735~미상)	1
89	"	李俞賢(생몰년 미상)	2
90	"	成德雨(1732~1827)	1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마다 적게는 1편, 많게는 172편에 달하는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장원으로 급제했던 인물은 鄭壽俊 · 尹憲柱 · 金啓煥 · 林象德 · 李巨源 · 金尙星이며,⁷⁾ 당대 문장가로 명성이 있었고 科文에도 뛰어났던 인물로는 尹淳 · 尹鳳朝 · 趙顯命 · 李匡德 · 吳光運 · 朴敬行 · 趙泰億 · 林象德을 손꼽을 수 있다.⁸⁾ 그리고 문집과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문장에만 특장을 보였던 인물로는 李日躋 · 柳東賓 · 朴道翔이 있다.⁹⁾ 이들은 다른 장르가 아니라 科文에서만 특장을 보였던 작가였다. 이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고 문집이 현전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李圭象(1727~1797)과 沈魯崇(1762~1837)을 비롯한 당대 인물들의 기록을 통해 이들

- 7) 『儷林』에 수록된 인물 중 장원급제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鄭壽俊은 1668년(현종 9) 庭試에서 장원, 尹憲柱는 1698년(숙종 24) 謁聖試에서 장원, 金啓煥은 1706년(숙종 32) 庭試에서 장원, 林象德은 1705년(숙종 31) 增廣試에서 장원, 李巨源은 1717년(숙종 43) 庭試에서 장원, 金尙星은 1723년(경종 3) 庭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 8) 尹淳은 1713년(숙종 39)에 시행된 增廣試에서 병과 28위로 급제하였으며, 尹鳳朝는 1705년(숙종 31) 增廣試에서 병과 5위로 급제, 趙顯命은 1719년(숙종 45) 增廣試에서 병과 7위로 급제, 李匡德은 1722년(경종 2) 庭試에서 을과 1위로 급제, 吳光運은 1719년(숙종 45) 增廣試에서 병과 15위로 급제, 朴敬行은 1742년(영조 18) 庭試에서 병과 6위로 급제, 趙泰億은 1702년(숙종 28) 式年試에서 을과 4위로 급제, 林象德은 1705년(숙종 31) 增廣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朴敬行과 趙泰億을 제외한 인물들은 모두 表箋이 출제되었을 때 급제하였다.
- 9) 李日躋은 1722년(경종 2) 謁聖試에서 병과 1위로 급제하였으며, 柳東賓은 1754년(영조 30) 增廣試에서 병과 7위로 급제, 朴道翔은 1771년(영조 47) 式年試에서 병과 26위로 급제하였다. 李日躋과 柳東賓 모두 表箋이 출제되었을 때 급제하였다.

이 科文에서 상당한 명성을 지녔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¹⁰⁾

뿐만 아니라 『儷林』은 신분과 특정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科文을 중심으로 뛰어난 작품을 남겼던 다양한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다. 少論에 속하는 인물로는 崔昌大·宋成明·尹淳·趙文命·趙顯命·李匡德 등이 있고, 老論에 속하는 인물로는 金有慶과 尹鳳朝가 있으며, 南人에 속하는 인물로는 睦天任과 睦天運이 있다. 그리고 이들 사대부와는 달리 여향문인으로 문장에 뛰어났던 朴敬行과 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儷林』은 시험 준비에 참고가 되고 전범이 될만한 科文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광범위하게 수록하여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하였던 필사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儷林』에 수록된 작품들을 살펴보겠다. 『儷林』에 수록된 작품 중에는 실제로 과거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안지도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해당 작가가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역대 과거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주제와 동일한 주제로 擬作한 작품들, 그리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전고를 변용하여 만들어진 예상 문제를 기반으로 擬作한 작품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儷林』에 수록된 709편에 달하는 작품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에 이를 대략적으로 고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儷林』에 수록된 작품들은 크게 작가 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科表의 세부 문체에 따라 다시 謝表-請表-賀表-進表-乞表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군주의 특별한 恩典이나 공적에 대하여 신하의 입장에서

10) 이들은 科文 가운데에서도 表箋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작가들이었다. 당대 유명했던 科文 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군주의 은덕에 감사를 표하거나 공적을 치하하는 謝表와 특정한 시안에 대하여 군주에게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는 請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¹¹⁾

해당 작품들의 試題를 분석한 결과, 漢·宋·周·唐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전고를 바탕으로 擬作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중국의 경우 太古시대부터 堯·舜, 夏·殷, 周, 春秋戰國, 秦·楚, 前漢, 後漢, 三國, 魏晉南北朝, 唐, 宋, 明대까지의 역사와 인물을 다루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古朝鮮¹²⁾부터 新羅¹³⁾·高麗·朝鮮시대까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주제와 작품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시대를 살펴보자면 太古시대(伏羲·黃帝 등), 殷·夏, 周나라, 春秋戰國시대, 秦나라, 楚나라, 漢나라, 三國(魏·蜀·吳)시대, 魏晉南北朝시대, 唐나라, 宋나라, 明나라, 국내이다. 이 가운데 漢·唐·宋나라와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당대 漢·唐·宋과 관련된 주제가 중심을 이루었던 科表의 출제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¹⁴⁾

『儷林』에 수록된 試題들은 역대 왕조별로 군신 간에 있었던 일이나 백성들이 군주의 은덕에 하례하는 등의 내용과 같이 의례적으로 출제되는 형식적인 문체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국내(조선)를 배경으로

11) 科表의 세부 문체에 대한 내용 및 형식적 특징은 정경주, 앞의 글, 2013, 100-113쪽을 참조하였다.

12) 고조선을 배경으로 擬作한 작품으로는 『儷林』 2책에 수록된 李思觀(1705~1776)의 「檀君群臣賀與老并立」이 있다.

13) 신라를 배경으로 擬作한 작품으로는 『儷林』 1책에 수록된 陸天任(1673~1730)의 「新羅王弟末斯欣謝會兄弟置酒作憂息曲以宣其意」가 있다.

14) 이상욱, 앞의 글, 2015, 198쪽.

한 試題 가운데 당시 국가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제시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숙종 대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출제된 ‘本朝群臣賀開拓土疆設置六鎮’¹⁵⁾과 영조 대 蕩平策과 관련하여 출제된 ‘擬本朝羣臣請固守去八月十八日下教之意, 其勿忙勿懈, 使大小臣僚, 咸歸寅協蕩平之治, 以百年謬習, 洗滌於今日’¹⁶⁾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試題들은 당대 현안과 함께 임금의 의중이 반영된 문제들로, 주로 역사적 사건과 인물고사를 바탕으로 출제되는 科儷에서도 국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주요 현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15) 1698년(숙종 24) 9월 11일에 시행된 春塘臺試에 출제된 試題이다. 숙종 대에는 청나라와의 국경선 문제로 인한 외교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던 시기였다. 1685년(숙종 11)부터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국경선 문제로 조선과 청나라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함경도 六鎮 지역이 이전 시기부터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1697년(숙종 23)에는 당시 領中樞府事였던 南九萬(1629~1711)이 《盛京圖》를 숙종에게 바치기도 하였으며, 1712년(숙종 38)에는 청나라와 북방 경계선을 확정지어 백두산 아래에 定界碑를 세워 국경을 확정지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449년(세종 31)에 六鎮을 개척한 金宗瑞(1383~1453)의 일을 바탕으로 한 試題가 출제되었으며, 疆域과 청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숙종의 관심을 試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시험에서 三上의 성적으로 갑과1(1/6)의 성적을 받은 尹憲柱(1661~1729)의 답안은 당시 출제되었던 試題와 함께 『儷林』 책1에 수록되어 있다.

16) 1730년(영조 6) 1월 8일에 시행된 入直應製試에서 출제된 試題이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蕩平 敎書를 발표하고 蕩平碑를 건립함으로써 ‘蕩平’을 國是로 내걸었다. 이와 같이 당시 영조가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방향을 試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시험에서 三中의 성적으로 居首한 趙顯命(1690~1752)의 답안은 試題와 함께 『儷林』 책1에 수록되어 있다.

3. 『儷林』의 자료적 가치 및 그 의의

3.1. 科儷 학습의 典範

주지하다시피 17세기 과거 제도에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외부적인 변화를 보자면 과거 시험의 시행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시험의 종류에도 변화가 생겼다. 16세기까지는 別試가 자주 시행되었지만, 17세기부터는 다른 시험에 비해 비교적 시험 절차가 간략한 庭試나 增廣試·謁聖試·春塘臺試가 자주 시행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의 黨爭으로 인해 조정에서 자기 당파를 영입하기 위한 집권 세력의 과거 시험 개입 및 과거시험의 시행에 드는 비용 절감의 문제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내부적인 변화를 보자면 숙종 대부터 謁聖試·庭試·春塘臺試와 같은 即日放榜, 즉 시험 당일에 바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¹⁷⁾ 단 한번의 시험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문체로 科表가 빈번하게 출제되었다. 과거 시험 과목에서 科表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 데에는 駢儷文에 대한 숙종의 애호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¹⁸⁾ 영조 즉위 초에는 科表의 출제를 지양하고 다양한 문체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科表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으며,¹⁹⁾

17) 17세기 과거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박현순, 앞의 글, 76-80쪽을 참조하였다.

18) 『肅宗實錄』 숙종 20년(1694) 윤 5월 24일(경인). “申汝哲曰: ‘罕設科擧, 以養其才然後, 可以得人.’ 九萬曰: ‘科擧之數, 無如當宁, 而文才乏絕, 亦無如今日. 鞫獄文案之成, 亦患艱難, 可慨也.’ 自上專尙儷文, 不勉講讀者, 亦冀僥倖, 此所以無人才耳. 武士試射, 直赴之科尤多, 不知操弓者, 皆爲之, 文武俱宜罕其試.’ 上然之.”

19) 『英祖實錄』 2권, 영조 즉위년(1724) 11월 24일(갑자). “鎭川幼學邊遇翼上疏, 略曰: ‘人之才藝, 各有所長, 閑於儷文者, 不閑於賦策, 工於賦策者, 不工於儷文, 而自數

정조 대에는 초계문신의 親試에서 科表를 꾸준히 출제하여 초계문신들의 제술능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²⁰⁾

이처럼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 숙종~정조 대에는 과거 시험 과목 중에 表와 箋의 출제 빈도와 비중이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자연스레 과거시험의 여타 문체보다 表·箋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지어는 급제를 위해 表·箋만을 습작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²¹⁾ 응시자들은 科儷로 자주 출제되었던 表·箋을 습작하는 과정에서 당대에 科儷에서 一家를 이룬 작가들의 작품들을 典範으로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과거 수험용 혹은 참고용 교재의 목적으로 科儷에서 명성을 떨친 작가들의 작품을 필사하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거 시험 제도의 변화와 응시자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숙종 대부터 다양한 종류의 과문선집들이 활발하게 편찬되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儷林』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문선집 자료 중 하나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면과 과문선집 가운데 典範과 善本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먼저 『儷林』은 당대 과거 응시자들이 습작했던 科儷 작품 중에서도 科儷 분야에서 가장 저명했던 작가들과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광범위

十年以來. 庭試·調聖·節製, 專以表試士, 故京儒之業科工者, 未窺甲乙, 先肄四六, 鄉儒之只習賦策者, 千里裹足, 及見表題, 閣筆曳白, 含淚絕望. 夫如是, 故榜中得人, 盡是京儒, 而鄉儒則無一人獲參者. 或云表是事大文字, 不可偏廢, 無已則有一焉, 繼自今, 以賦·表·論·策, 或輪次命題, 不然則或以賦·表, 或以論·策, 分標兩題, 如用十人, 各用五人, 則京鄉儒咸售所長, 而國無遺珠之歎, 士無泣玉之冤矣.”

20) 줄고, 『『正始文程』을 통해 살펴본 정조 문체정책의 한 국면』, 『민족문화연구』 80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58쪽.

21) 정경주, 앞의 글, 2013, 120쪽 발췌요약.

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과문선집과는 차이가 있다. 현전하는 과문선집들을 살펴보면 응시자들의 필요에 따라 시기·주제·작가별 분류방식체제를 갖춘 각종 과문선집들이 편찬되었다.²²⁾ 그 가운데 『儷林』은 작가별 분류 방식으로 편집된 과문선집으로, 17세기~18세기에 활동했던 인물들 가운데 科儷에 특장이 있었던 90명의 많은 작가들과 709편에 달하는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儷林』과 함께 과문선집 중에 善本으로 꼽을 수 있는 자료로 『東儷文』²³⁾이 있는데, 『儷林』에 수록된 작품들과 창작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선집의 작품 수량을 비교하면 『儷林』에 수록된 작품의 수가 『東儷文』의 작품 수 보다 적지만, 수록된 작가의 수를 비교하면 『儷林』에 수록된 작가의 수가 『東儷文』에 비해 월등히 많다.²⁴⁾ 물론 선집에 수록된 작품의 수량이 善本으로서의 가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작가별 분류방식체제를 따라 편집된 과문선집의 성격으로 볼 때 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한 『儷林』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儷林』의 작품에는 편찬자나 소장자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批點이 있어 당시 응시자들이 습작의 전범으로 삼았고 이 작품을 어느 정도로 애호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22) 시기·주제·작가별 분류방식체제를 갖춘 科儷 선집들에 대한 자료 개관은 이상욱, 앞의 글, 2015, 49쪽을 참조하였다.

23) 『東儷文』은 전체 10책의 필사본으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까지 활동했던 인물들이 실제 시험에 제출했던 답안지, 그리고 習作하거나 私作한 科文들을 모아서 인물별로 분류하고 편집한 책이다. 수록된 인물은 53명이며 작품의 전체 수는 1,221편에 달한다.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24) 『東儷文』에 수록된 작품과 『儷林』에 수록된 작품은 500여편 정도 차이가 있지만, 『東儷文』의 경우에는 朴道翽이나 權綱처럼 특정 작가의 작품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에 수록된 인물들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儷林』이 더 善本으로 판단된다.

또 작가별 분류방식체제를 갖추고 있는 과문선집 가운데 『東表』·『東儷文』과 『儷林』을 비교하면, 『儷林』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더욱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東表』와 『東儷文』의 경우에는 필사자의 학습 요구에 따라 필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생략한 구절들이 있어서 작품의 온전한 모습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儷林』의 경우는 科儷의 투식은 생략하였지만,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필사되어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다음으로 『儷林』은 관찬 수험서가 아닌 온전히 응시자들의 수요에 의해 편찬된 텍스트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科文은 각 문체마다 程式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국가에서 더 이상 문체의 격식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기에 국가의 개입은 줄어들고 관찬 수험서가 희소해졌다.²⁵⁾ 실제 과거를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과문선집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은 필사본이 제작되고 유통되었는데, 『儷林』에서도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과문선집의 편찬에 있어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전의 양상과는 달리,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科文 선집 편찬의 주체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개인이 필사하여 제작하고 유통한 과문선집에 수록된 당대 科儷에 저명했던 인물들과 그들이 상당수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과문선집도 수록된 작가와 작품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다. 과문선집들은 다양한 편집 기준과 작품 수록 원칙을 적용시키며, 이러한 편집 기준과 작품 수록 원칙은 그 자체로 당대 科文 학습과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²⁶⁾ 『儷林』과 같은 텍스트의 등장은 조선 후기에

25) 졸고, 「조선 전기 『三場文選』의 수용 양상에 관한 일고찰」, 『고전과 해석』 22권,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7, 352쪽.

과문선집의 편찬에 더 이상 이전시기처럼 절대적인 국가의 가치와 규범이 적용되지 않고, 수험자 개인의 취향과 적극적인 취사선택이 반영되어 다양한 종류의 과문선집들이 출현하게 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3.2. 조선 후기 科文에 특장을 지녔던 작가군의 수록

과문선집에 수록된 작가들 중에는 당대에 정통 한문학 작가로 文名을 떨친 이들도 있지만, ‘科文’이라는 특수한 장르에 특장을 지니고 명성을 떨쳤던 작가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科文에 특장을 지녔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정통 한문학 장르와 科文에서 文名을 떨쳤던 작가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科文에 실제 연구에 있어 科文이라는 특수한 장르에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이며, 명편으로 인정을 받아 典範으로 읽혀지고 필사되었던 작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儷林』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통 한문학 장르와 科文에서 文名을 떨쳤던 작가와 그들의 작품도 실려 있지만, 지금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科文에 특장을 보였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이는 과거의 실제 연구에 토대가 되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며, 『儷林』에 수록된 작가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에 대한 기록을 고찰하는 과정 역시 조선 후기 科文에 특장을 지녔던 작가군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26) 이상욱, 앞의 글, 2015, 38쪽.

『儷林』에 수록된 작가들은 두 층위로 구분하자면 당대에 문장가로 명성을 떨친 동시에 科文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인물, 그리고 특히 科文에 특장을 지녔던 인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당대에 문장가로 명성을 떨친 동시에 科文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인물은 駢儷文에 특장을 보였으며 아울러 科文에도 뛰어났다.²⁷⁾ 대표적으로 尹淳(1680~1741)은 駢儷文과 科文에 뛰어났는데, 특히 그가 창작한 駢儷文을 후배들이 다투어 전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駢儷文 작성에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²⁸⁾ 尹鳳朝(1680~1761)는 科儷와 科策에 모두 뛰어났으며,²⁹⁾ 李匡德(1690~1748)은 李圭象이 『并世才彥錄』에서 ‘科文錄’과 ‘文苑錄’조에 모두 수록된 작가로 駢儷文과 科儷에 특장을 보였다.³⁰⁾ 趙泰億(1675년~1728년)의 경우, 그가 창작한 科儷는 科儷의 법식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³¹⁾ 위의 작가들은 지금까지 정통 한문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

-
- 27) 작가들에 대한 정보와 기록은 李圭象(1727~1797)의 『并世才彥錄』에 실린 기록을 근거로 하였다. 『并世才彥錄』은 18세기 문학·예술·기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났던 인물들을 망라해놓은 책이다. 이 책에는 科文의 각 문체인 科詩·科儷·科賦·科策의 程式 및 문체적 특징과 함께 각 科文의 문체에서 일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기록한 ‘科文錄’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 科文으로 인정받았던 작가들과 명편으로 손꼽혔던 작품들에 관련한 기록을 살필 수 있다.
- 28) 李圭象, 『書家錄』, 『并世才彥錄』, “善儷文科體, 儷文競傳後曹, 健以有味.” 원문은 이규상 지음,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18세기 조선 인물지』, 창작과 비평사, 1997을 참조하였다. 이하 『并世才彥錄』도 동일하다.
- 29) 李圭象, 『文苑錄』, 『并世才彥錄』, “善科儷·科策, 健而有味, 可讀.”
- 30) 李圭象, 『文苑錄』, 『并世才彥錄』, “作詩, 文藻矯峭, 意致精妙, 殆甲一世, 善儷.” 『儷林』에는 李匡德이 1722년(경종 2)에 시행된 庭試에서 을과 1위(2/9)를 했던 작품인 「宋蘇軾請解轡秣以須東方之明徐行於九軌之道」를 비롯한 16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 31) 李圭象, 『科文錄』, 『并世才彥錄』, “儷體最近於同文之用, 遽不可以科體目之也. 體最備於近世趙泰億.” 『儷林』에는 趙泰億이 1697년(숙종 23) 1월 20일에 시행된 黃柑製 때 三中の 성적을 받은 작품인 「本朝江華守臣淸於今丁丑正月致祭本府殉

되고 연구되었던 인물로, 그들의 科文은 개인 문집에도 실려 있는 경우가 드물어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儷林』에 수록된 많은 작품들을 통해 그들이 실제 창작했던 科文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정통 한문학 장르 뿐 아니라 科文에 있어서도 뛰어난 문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儷林』에 수록된 인물 가운데 科文에 특장을 지녔던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儷林』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科文에서 손꼽혔던 대표적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이 실려 있는 작가들로는 李日躋(1683~1757), 柳東賓(1720~미상)³²⁾, 朴道翔(1728~미상), 權綱(1708~미상)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儷林』 뿐만 아니라 여타 과문선집에도 많은 작품이 수록된 작가들임을 볼 때, 당대 科文에서 명성을 떨쳤던 작가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문집이 거의 현전하지 않고 인물 정보 역시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당대에 이들의 이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사료나 필기자료에서 科文과 관련한 언급에서 科文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로서 이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沈魯崇의 『自著實記』에 수록된 다음의 글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表文과 箋文은 林象德과 李日躋의 작품을 배웠고, 그 이하는 논하지 않았다. 尹志泰와 朴道翔 같은 이들의 작품도 배우지 않았다. 오직 柳東賓이 林象德과 李日躋의 뒤를 이었다고 생각해 그들의 작품을 四六文을 짓는 과정으로 삼아 글을 지었다. 시문보다 몇 배나 공력을 들였으나 결국에는 성취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것이 매우 큰 한이다.³³⁾

節諸及戰亡將士」를 비롯한 2편의 작품을 수록되어 있다.

32) 이후 柳國信으로 改名하였다.

심노승은 조선 후기 小品文 작가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며 문장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위의 글에서 실제 과거를 준비하면서 그가 어떤 작가들을 典範으로 삼았는지 알 수 있다. 그는 表와 箋, 즉 科儷에 있어서는 林象德·李日躋·尹志泰·朴道翔·柳東賓 등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 있지만, 이 중에서 임상덕·이일제·유동빈 세 사람의 작품만을 四六文을 짓는 과정으로 삼아 詩文보다 몇 배의 공력을 들여서 科儷 글쓰기 연습을 하였다고 하였다. 심노승의 말을 따르자면 당시 科儷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林象德, 李日躋, 尹志泰, 朴道翔, 柳東賓이 손꼽혔으며, 심노승 자신은 그 중에서도 임상덕·이일제·유동빈과 그들의 작품을 典範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李日躋은 科表에 비상한 재주가 있어서 문장이 능란하고 예리하여 科表 중에서 가장 능수로 손꼽혔다는 평을 받았고, 「韓信謝封淮陰侯」는 비록 韓信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규상이 칭찬해 마지 않았다.³⁴⁾

심노승의 언급에는 빠져있지만, 『儷林』에 172편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된 박도상은 다른 科文 선집에도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된 작가 중의 한 명이다. 그는 시문에 능하였으며, 특히 駢儷文과 製述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 영조가 문신들에게 시문을 짓게 할 때 여러 번 1등에 뽑혔다.³⁵⁾ 정조 대에 시행된 제술시험에서는 表로 수석을 차지하여 정조

33) 沈魯崇, 『自著實記』, “表箋學爲林象德·李日躋之作, 以下不論. 雖如尹志泰, 朴道翔者, 亦無取焉. 惟柳東賓可以展林李之後. 以此作爲四六之學之程, 積費力有倍於詩文卒不得有成, 此爲甚恨也.” 번역 및 표점은 심노승 저, 안대회 김보성 외 옮김,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를 참조하였다.

34) 李圭象, 『科文錄』, 『并世才彥錄』, “李參判日躋, 字君敬, 表才異常, 其才全在於人事上, 形容人所欲言, 反勝其人之口. 文亦尖利自有, 科表中第一能手.”

35) 『英祖實錄』 영조 46년(1770) 9월 8일(신해); 『英祖實錄』 영조 51년(1775) 4월 15일(계사).

의 칭찬을 받았다.³⁶⁾

이처럼 17세기 후기에는 科文에 특장을 보였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필사되어 실제 유통되었다. 이들과 관련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문집도 전하지 않아 작품의 규모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과문선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그들의 작품과 수준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과문선집 연구에서 『儷林』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과거 연구자들이 科文을 ‘문학성이 결여된 문체’라고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주로 과거 문장의 내용적 측면보다는 형식적 측면에 주목하여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科文에서 손꼽혔던 대표적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위상이 정립된 작가들과는 결이 다르지만, 적어도 科文에서 특장을 지녔던 작가들로 당대에 이미 인정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기록과 그들이 작성한 과거 답안도 상당수 현전한다. 대부분의 과거 응시자들이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작품을 모범 답안으로 참고하고 활용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科文의 習作·擬作 활동은 일반 문인들의 문학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시대에 따른 문학의 변모 과정에 있어 문학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과거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科文에서 손꼽혔던 대표적 작가들의 실체를 밝히고 그

36) 『正祖實錄』 정조 즉위년(1776) 9월 4일(임신). “壬申/親試文臣製述. 文臣李昌漢白文呈券, 命誦登科表題, 昌漢不能誦. 右副承旨金鍾秀奏曰: ‘李昌漢雖極矇然, 年久之科題, 無怪其不能誦. 古語曰: ‘臣何足言有辱朝廷?’ 昌漢固不足恤, 而在聖朝寬大之政, 合有原恕之道矣.’ 上曰: ‘承旨言是也.’ 仍勿問. 論居首吳大益, 表居首朴道翔, 各賜貂皮煖帽.”

들의 작품들을 고찰함으로써 조선 후기 科文에서의 대표적 작가들을 발굴하는 동시에 조선 후기 문학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나가며

본 논문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과문선집인 『儷林』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儷林』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儷林』은 주로 숙종~정조 대까지 활동했던 90명의 작가들이 실제 시험에 제출했던 답안지와 습작한 科儷 709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응시자들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참고하여 학습하였던 典範이 되는 작품들을 분류하여 정리한 選集으로, 당대 科文에 있어서 典範이 되었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儷林』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그 의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儷林』은 관찬 수험서가 아닌 온전히 응시자들의 수요에 의해 편찬된 수험서로, 당대 응시자들이 습작하였던 科儷 작품 가운데에서도 科儷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작가들과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다. 숙종 대부터 국왕의 변려문에 대한 애호와 함께 科表의 출제 빈도와 비중이 높아지면서 응시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수험자 개인의 취향과 취사선택이 반영된 다양한 종류의 과문선집들이 편찬되었다. 『儷林』은 여타의 과문선집에 비해 90명이나 되는 많은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작품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科儷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투어들은 생략하였지만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필사되어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典範과 善本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다음으로 『儷林』은 조선 후기 科文에 특장을 지니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작가군을 수록하고 있다. 17세기 후기에는 科文에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고 필사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儷林』은 이러한 당시 정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科文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科文에서 손꼽혔던 대표적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李日躋(1683~1757), 柳東賓(1720~미상), 朴道翺(1728~미상), 權綱(1708~미상)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儷林』에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이 수록된 작가들로, 사료나 필기자료에서 科文과 관련한 언급을 통해서 科文에서 특장을 지녔던 작가로서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지만 생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으며 문집도 남아있지 않아 실제 그들의 작품과 특징적 면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儷林』과 같이 과문선집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그들의 실제 작품과 수준을 살펴볼 수 있기에 과문선집 연구에서 『儷林』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는 적지 않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儷林』 4책, National Library of Korea - Harvard Yenching Library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990079866680203941]

『東儷文』 1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K4^0083]

2. DB 및 웹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KORCIS (<http://www.nl.go.kr/korcis/>)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장서각(<http://jsg.aks.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하버드대 도서관 소장본 온라인 목록 HOLLIS(<http://hollis.harvard.edu>)

3. 논저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심노승 저, 안대회 김보성 외 옮김,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

이규상 지음,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18세기 조선 인물지』, 창작과 비평사, 1997.

김동석, 「朝鮮時代 試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박선이, 「조선 전기 『三場文選』의 수용 양상에 관한 일고찰」, 『고전과 해석』 22권,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7.

_____, 「『正始文程』을 통해 살펴본 정조 문체정책의 한 국면」, 『민족문화연구』 80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李秉燦, 「科文의 形式考(Ⅱ)-表·策을 중심으로」, 『釜山漢文學』 第2輯, 부산한문학회, 1986.

정경주,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大東漢文學』 39권, 대동한문학회, 2013.

[Abstract]

A Study on Collection of Gwamun,
Ryeo Rim (儷林) in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Material Overview, Its Value, and Significance-

Park, Seon-y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uthors and their works in Collection of Gwamun, Ryeo Rim, compiled during late Joseon Dynasty and to investigate on material value of Ryeo Rim.

Ryeo Rim main includes answers for test questions and 709 Gwa Ryeo (科儷) pieces that were practiced or privately made by 90 figures who were active from King Sukjong times to King Jeong Jo times. The book is a collection of excellent pieces that examinees of the time referred to and learned to prepare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 book serves as a suitable material for exploring the exemplary authors and their works. In response, this study explored the material value and significance of Ryeo Rim in two aspects.

First, Ryeo Rim holds value as exemplary model (典範) and valuable book (善本) among Collection of Gwamun. It also holds significance as a text compiled upon the demand of examinees who prepared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of the time instead of a test book compiled by the government. The compilation method for present Collections of Gwamun is classified depending on time, theme, and author. Among Collections of Gwamun classified based on author, Ryeo Rim includes the highest number of authors and the included works involve red marks. These imply the phrases that examinees regarded as exemplary works and their preference on the works. Furthermore, in comparison between works included in other Collections of Gwamun classified based on author, while the format of Gwa Ryeo was omitted, all other remaining phrases were transcribed to have a complete form. Therefore, it holds significance as

* Korea University Ph.D Candidate / dudu0218@naver.com

a valuable book. Furthermore, Ryeo Rim holds significance as a text compiled upon the demand of examinees rather than a text book compiled by the government. In late Joseon Dynasty, the style of writing for each Gwamun was arranged and it was un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uggest the style of writing. In response, numerous manuscript test books were privately made and distributed. Ryeo Rim is one of the important materials that show such process of change. It also implies that absolute state value and standard were not applied anymore in compilation of Collection of Gwamu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at personal preference and active choice of examinees were reflected to publish various types of Collections of Gwamun.

Secondly, Ryeo Rim holds value as a text that includes the groups of authors who had strength in Gwamun during Joseon Dynasty. In late 17th century, authors specialized in Gwamun and their works were widely spread among examinees preparing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the transcription versions were actually distributed. Ryeo Rim reflects such aspects and it includes considerable number of authors specialized in Gwamun and their works that were not spotlighted in previous researches on Gwamun. Representative figures included in Ryeo Rim are Il Jae Lee (李日躋, 1683~1757), Dong Bin Yu (柳東賓, unknown birth and death date), Do Sang Park (朴道翔, 1728~unknown), and Kyeong Kwon (權綱, unown birth and death date). As there are only few records and collections of works by these figures, it is hard to identify the scale or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However, the works included in Collection of Gwamun show their works and quality. Therefore, Ryeo Rim holds huge material value in research on Collection of Gwamun.

Key words : Ryeo Rim, Collection of Gwamun (科文選集), Gwa Ryeo(科儺), Gwamun (科文), Civil Service Test Book

논문접수일 : 2020.07.10.

심사완료일 : 2020.08.13.

게재확정일 : 2020.08.20.